

대기전력 국제 협력 활동

4E 대기 전력 국제프로젝트는 정부 정책 개발자에게 대기 전력 모드 내에서의 제품 에너지 낭비를 방지할 성공적인 정책 개발을 지원할 정보, 리포트 및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브리핑은 전세계 에너지 낭비에 대한 각 정부의 뚜렷하고 결연한 행동이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강조합니다.



대기전력은 1986년에 처음으로 심각한 에너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제 전문가는 대기 전력이 세계 소비 전력량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가정 내 전기 사용량의 1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¹⁾.

ENERGY STAR는 대기전력 문제를 다룬 첫 국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으로 1992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대기모드 소비 전력량을 1와트 아래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각 정부에 요청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전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05년 글렌이글스에서 G8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위급 지지는 정부 위원단 및 업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005년부터, 국제 전기 커뮤니티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정부는 4E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업계와 제휴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정부는 현재 절전 모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 문제를 다룰 규제와 자발적 규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임의 체도를 2005년 최초로 도입하였고,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8년에는 보다 넓은 범위의 전기제품에 대해 효율 규제 및 의무적 경고 등급을 채택하고, 도전적이지만 성취 가능한 절전 모드를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에넥스 보고서 배포처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국제프로젝트의 산출 결과는 국제프로젝트 웹사이트인 <http://standby.iea-4e.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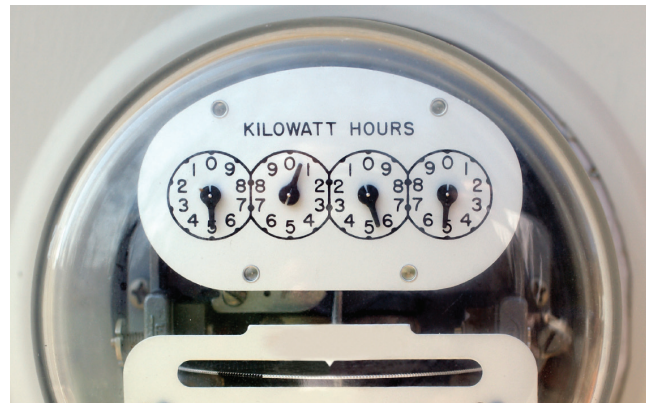
국제프로젝트는 또한 회보를 발행해 정기적으로 국제 대기 전력 문제와 행사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는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구독이 가능합니다.

정책 개발자를 위한 관측

- 강력한 리더십과 정부의 가시화된 노력은 지속적인 정책 효과 구현에 핵심 요인입니다.
-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제품의 대기전력 소비를 바꾸기 위해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 규제는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에너지와 친환경 혜택을 공고히 하지만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반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규제적 성격의 간섭을 감독하고 검토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또한 에너지보존에 힘씁니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

국제에너지기구 공표 이후 지난 십 년간, 전기제품의 대기전력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²². 이는 각 국가 정책 방향을 단일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 결연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2013년 유럽 연합은 “오프” 모드를 0.5 와트나 그 이하로 규제하는 첫 번째 지역이 됩니다. 이는 또한 정부 조치가 글로벌 산업이 효율적 절전 모드를 구현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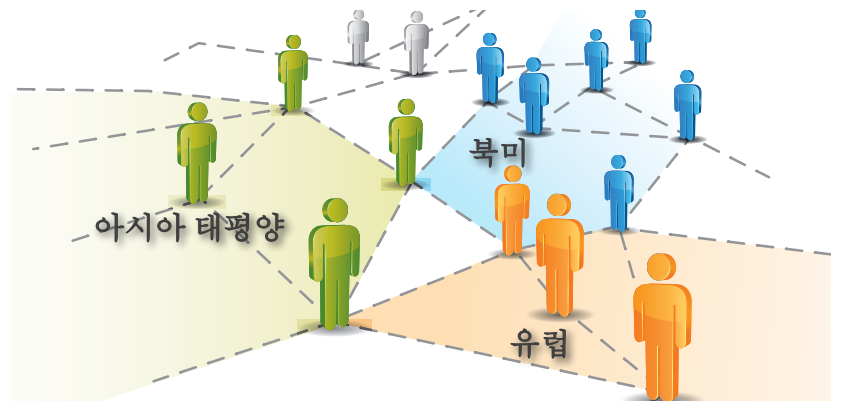


네트워크 전자제품의 위험

지난 십 년간 정부 조치는 독립형 제품의 대기전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드러난 네트워크 전자제품의 에너지 낭비는 풀어야 할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상응하는 수준의 노력, 자원 및 협력을 제공하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해야 합니다.

4E 대기 전력 국제프로젝트의 역할

4E 대기 전력 국제프로젝트는 회원국 및 주요 국제 산업체 간의 돈독한 관계를 지원하며 이러한 관계가 세계 공조 및 에너지 절약을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²²2010 EES, 대기 전력 및 절전 네트워크 문제점 및 방향

²2012 IEA 시행 동의, 대기전력 벤치마킹 보고서.